

문영명  
대한간학회 회장

## 건강생활 실천으로 간질환 예방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서 간질환은 단일 장기에 의한 사망원인 1위인 주요질환으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질환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현명한 교훈을 일깨워주며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최선의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만성 바이러스성 간질환으로 B형 간염이 60~70%, C형 간염이 15~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음주문화와 약물오남용이 간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성 간질환의 대부분인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꾸준한 퇴치 노력은 의학계와 함께한 국가적인 예방정책 수립으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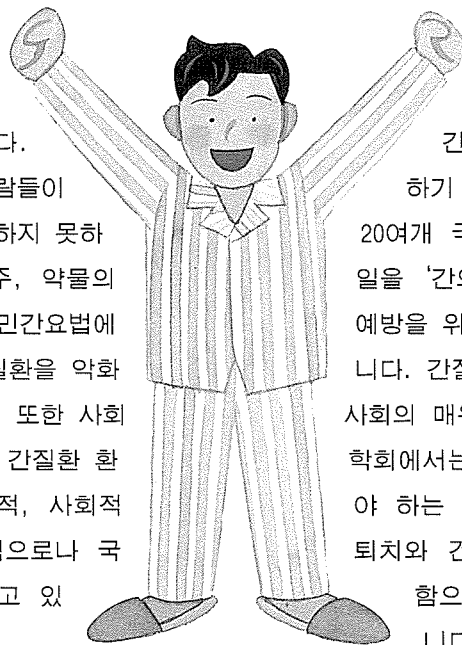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간질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 습관성 음주, 약물의 오남용,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등 오히려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인식이 간질환 환자들에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질환은 건강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로서, 대한간학회에서는 21세기 의료계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간질환 퇴치와 건전음주문화를 정착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치료제들은 간염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암정복사업의 일환으로 간암 조기진단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간질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 습관성 음주, 약물의 오남용,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등 오히려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인식이 간질환 환자들에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 습관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다면 간질환

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간질환의 중요성과 간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간학회에서는 세계 약 20여개 국가와 함께 2000년부터 10월 20일을 '간의 날'로 제정하여 간질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간질환은 건강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로서 대한간학회에서는 21세기 의료계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간질환 퇴치와 건전음주문화를 정착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